

2022년 11월 13일(다해)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 - 11 월 ]



### 복음화 지향 : 고통받는 어린이들

고통받는 어린이들, 특히 거리의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전쟁의 피해자가 된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가정의 사랑을 되찾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합니다. 만물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신 하느님께서, 아드님의 살아 있는 성전에 온 인류를 모으십니다. 변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굳게 믿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갑시다.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9-20

<너희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화답송** 시편 98(97), 5-6.7-8.9 (◎ 9 참조)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 3,7-12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복음 환호송** 루카 21,28 참조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5-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영성체송** 시편 73(72), 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영성체 후 묵상**

그날이 오면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검불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로써 생명을 얻읍시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허영업 마티아 신부 ♣

**부활을 믿는 사람**

임종을 앞두고 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녹음한 테이프를 건네주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들들은 어머니가 주신 테이프를 들었다. 그 테이프 안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분은 오랫동안 직접 복음서를 읽어서 녹음했다. 그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남겨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남은 자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녀들은 떠듬거리며 성경 말씀을 읽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 테이프를 유산으로 남겨 주셨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오늘 복음(루카 21,5-19)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다. 세상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은 한 마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11월은 위령성월로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보내는 은총의 시기이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죽음을 자주 묵상하도록 권고한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삶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빛나고 분명해지는 이치이다.

세상 종말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셨다. 또한 유대인의 기대처럼 예수님은 결코 세속적인 왕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고 죄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겸손의 왕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유대인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주님의 부활은 정의가 불의를, 생명이 죽음을, 선이 악을 결국 이긴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다. 이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7-19).

**| 연중 제 33 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복음 필사 |**

경의 마음의 내  
전한 구원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  
.....  
.....  
.....

'최후의 심판'(부분)  
로히어르 판 데르 베이던 작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위령성월(11월) 유래와 의미**

위령성월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특별한 신심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특히 연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영혼들이 정화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이들이 희생하고 선행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령성월 중 위령의 날을 통상 11월 2일에 지키는 것과 바로 전날인 11월 1일을 모든 성인 대축일로 지키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톨릭신자들이 미사 때마다 바치는 사도신경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로 표현되는 통공 교리는 교회를 이루는 세 구성원인 세상에 살아 있는 신자들과 하느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성인들, 그리고 아직 고통을 겪는 연옥 영혼들이 하느님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위령성월 기간 동안 살아 있는 이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 먼저 간 모든 성인들이 현세를 사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살아생전 하느님과 맺은 친교는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즉 하느님의 백성은 죽음이 끝이 아닌, 생과 사를 초월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출처 : 가톨릭신문]

**[미사 전 연도 안내]** 위령성월 동안 주일 오후 2시 15분부터 위령들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 소공동체별 연도 선창 순번 : (13일) 요한반 → (20일) 루카반 → (27일) 마르코반

**제 38회 성서 주간 담화 | 11월 20일~26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님께서 제 38회 성서 주간을 맞이하여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시기(Untact)를 최근 몇 년을 보내오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만나고 소통하는(Ontact) 생활 양식이 뉴 노멀이 되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변화를 맞이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한 신앙생활과 그에 따른 실천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차츰 회복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편의에 따라 신앙의 임시방편을 선호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교회의 전례와 성사,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현장에서 믿는 이들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한 친교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담화문] <https://www.cbckorkr/Notice/20221056?page=3&gb=K1200>

**주일미사 의무 관면 해제**

크리스토퍼 주교님께서서는 교구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결정하셨던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중 주일미사 의무 관면을 코로나 19에 대한 새로운 상황의 사실을 고려하여 11월 27일 (대림 제 1주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체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에 참석하고,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 전체의 "근원이자 정점"인 성찬례를 위해 모이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행동으로 공동체가 모이고 믿음과 경축 안에서 함께 걸을 때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걷기(Walking Together)"를 계속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022년 성탄 판공성사(11월 27일~12월 18일)**

판공성사표 분배 : 각 소공동체 반장님(11월 20일(주일)) 성사 순번(권고) : (11월 27일) 요한반 → (12월 4일) 루카반 → (11일) 마르코반 → (18일) 마태오반

**꾸르실료 재교육 (11월 26일~27일)**

2019년 꾸르실료 교육을 수료하셨던 교우 세분(김수연 베로니카, 임채숙 마리아, 주정자 루치아)의 재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분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캠프(AMICUS CAMP)**

일시: 12월 26일(월)~ 28일(수) 문의 : 김예린 크리스티나 (☎ 0433 934 686)

※ 캠프 참가비 일부 지원

**2023년 공동체 달력**

11월 13일(주일)부터 각 가정당 1부씩 미사 전 성전 입구에서 나눠드립니다.





| 연중 제 33 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주간실천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7가지 손쉬운 방법 ㉔**  
 1-2Km 정도는 걸어서 다녀봅니다.  
 <자료 제공\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㉗**  
 일주일 1회, 대중교통 이용(승용차 요일제)  
 → 39,12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어안채**  
 위령 성월  
 [나에게 의미있는  
 위령성월을 보내는 방법]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정진섭 신부님의 위령 성월 강의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12 강]  
 흥해바다 사건의 진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탈출기 3부 | 1-18 장  
 | 첫번째 광야여정

**CPBC 뉴스**

"시노달리타스 = 성직자 + 평신도  
 = 교회적 우리"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0 월 30 일	성인 33 아이 11	11 월 2 일 (위령의 날)	성인 13	11 월 6 일 (로컬 다문화 미사)	성인 25 아이 8
-----------	----------------	---------------------	-------	-------------------------	---------------

□ 우리들의 정성 (10 월 29 일(토)~11 월 4 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전인철	주정자	진윤기	황병욱	허준		
교무금 \$840 (14 가정), 봉헌금 \$200							

□ 우리들의 정성 (11 월 5 일(토)~11 일(금))

구민식	권묘순	양홍석	장호훈				
교무금 \$210 (4 가정), 봉헌금 - (11 월 6 일 주일 로컬 다문화 미사 참례)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11 월 13 일, 연중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11 월 20 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3 일) 루카반 → (20 일) 마르코반 → (27 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매월 첫째주 식사) : (20 일, 간식) 마르코반 → (12 월 4 일) 마태오반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 11 월 6 일(주일) 로컬 다문화 미사 및 음식나눔·친교 행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로컬 커뮤니티에서도 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